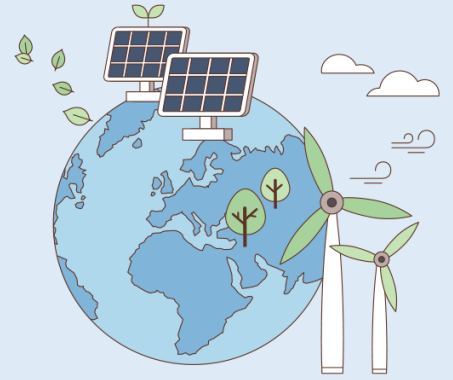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지구의 허파' 브라질 아마존, 탄소 배출량이 흡수보다 많아져 *중앙일보*
- "탄소의 자원화" ... 정유·석화업계, CCU 상용화 '가속도' *뉴데일리*
- 롯데푸드, 업계 최초로 전체 영업사원 친환경 전기차 지급 *스포츠투세울*
- 폭스바겐 "2030년 중외의 모든 공장 친환경 전기로 가동" *파이낸셜뉴스*
- [탄소배출권 3기 마무한 재계] 온실가스 감축 여부, 재무제표 '숫자'로 직결 *더벨*
- 기후 리스크 공개 압박하는 금융회사...TCFD가 주류화 이끈다 *매거진환경*
- 포스코 ESG 성과 화폐가치로 평가한다 *매일경제*
-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표준, 新 기후평년값 *머니투데이*
- 두산중공업, 폐플라스틱으로 매일 수소 3t 만든다 *한국경제*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구본준 회장의 '1X홀딩스' 공식 출범...신사업 확대 중점 *한국금융신문*
- 쌍용차 '새주인 찾기' 재시동... 이달 공개 입찰 *파이낸셜뉴스*
- 씨젠 관계사 SG메디칼, 지난해 씨젠의료재단 매출 80% 늘어...천중윤·천종기 형제와 관계는? *매가경제*
- SKT, 자사주 2조6000억 소각 결정... "주주 가치 극대화" *머니투데이*
-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대방건설, 중견 건설그룹 힘은 기업 쪼개기 *톱데일리*
- YG, 소유·경영 분리 수순...'포스트 양현석' 리더십 어디로 *더벨*
- 카카오, "지배구조 개편" ... "엔터재팬 IPO 검토" *한국경제TV*
- [지주회사 분석] (주)GS 오너 1인 평균지분율 0.96%, 독일가 실일까 *더벨*
- SBS 지주회사 합병 "계열사 독립·책임경영 강화될 것" *연합뉴스*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LG디스플레이, RBA·UNGC 가입.. "ESG 경영 강화" *블로터*
-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소셜벤처', 육성 탄력 받는다 *이데일리*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 종료... "전원 마포빌딩 근무" *뉴스1*
- 공식석상 안나오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오늘 '직접 사과' *한국경제*
- 포스코인터, 중소벤처기업과 상생 '성과' *파이낸셜뉴스*
- 삼강에스앤씨 올해 노동자 2명 숨져 "노동부...집중 감독" *매일안전신문*
- GS그룹으로 번지는 불매운동...유단맛은 점주들 '부글부글' *시사저널*
- 남양유업 대리점 배상 어찌나...커지는 '오너리스크' 목소리 *머니투데이*
- 직장 내 괴롭힘 '동상이몽'...20대 "그대로" 50대 "졸었다" *서울경제*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배제안' 다음 기금위로 연기... *이코노뉴스*
- 애플-테슬라-네슬레...1등기업들 ESG도 빨랐다 *매일경제*
- 자산운용사도 ESG...위원회 설립·상품 출시 '붐물' *한국금융신문*
- IMM PE "투자 검토단계부터 ESG 원칙 적용" *연합뉴스*
-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투자사에 "이사회에 ESG 정기 보고하라" 첫 요구 *헤럴드경제*
- 투자처 발굴에서 딜 전반으로...ESG 속도 내는 PEF *이데일리*
- 사학연금, 국내 주식 위탁기관 9곳 모집...ESG 평가요소 반영 *서울경제*
- 산업 R&D 투자 30% 확대... "탄소중립 실현 발판 마련" *뉴스토마토*
- '기후 위험' 판결 독일, 탄소중립 2045년으로 5년 앞당겨 *한겨레*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와 온실가스 저감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05.03

E

-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분(소각·매립)하거나 재활용하는 산업으로 2019년 기준 국내에는 총 14,800여개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중임. 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경기와 산업생산 증감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폐기물 총 발생량은 1억 8,149만톤으로 2018년 대비 11.5% 증가함. 총 폐기물의 86.5%가 재활용 처리되었고, 처리 주체별로는 처리업체가 81.7%를 담당함
-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분야(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의 변화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이 중에서 폐기물 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배출 비중)은 2.3%로 크지 않지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순환경제 구축으로 이어져 에너지(86.9%) 및 산업공정(7.8%)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소각, 매립, 재활용)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발생은 감축시킬 수 있으며, 화력 발전과 같은 천연자원을 원료로 한 전력생산 부담을 줄여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자원 회수율을 높인다면 산업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함. 즉,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에너지·자원 생산)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매출 증대 및 가치 상승과 함께 국가 2050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러시아 디커플링 현상은 '탄소중립' 이슈에서 비롯

- KOTRA 21.05.07

S

- 2000~2014년 세계 45개국이 저탄소 정책을 펼쳤으며, 이 중 35개국이 실질 GDP가 증가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남. 특히 싱가포르의 강력한 저탄소 탈동조화 정책을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GDP의 2개 성장을 기록하면서 탄소배출량의 46%를 감소시킴. 디커플링의 정부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남. 직접적인 금전지원부터 시장규제까지 다양하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소비자와 생산자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제품가격을 탈동조화(순차적 가격 상승)하는 방법임. 예를 들어 자동차의 평균 에너지 효율성이 연간 1% 증가하는 경우 휘발유 가격을 유사한 시기와 속도로 상승시키는 방법임.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이러한 변동성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동시에 환경문제를 균형있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임
- 러시아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대비 이미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2018년 기준 러시아 토지 사용과 임업을 제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69.7%가 감축된 것으로 분석됨. 다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오염물질 배출 감축보다는 기술발전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연구소는 외국기업 기술도입으로 스마트 전력망, 전기차 상용화, 수소연료 개발, 석유화학단지 오염배출 시스템 첨단화 등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발전의 디커플링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함

EU 분류체계의 은행산업 적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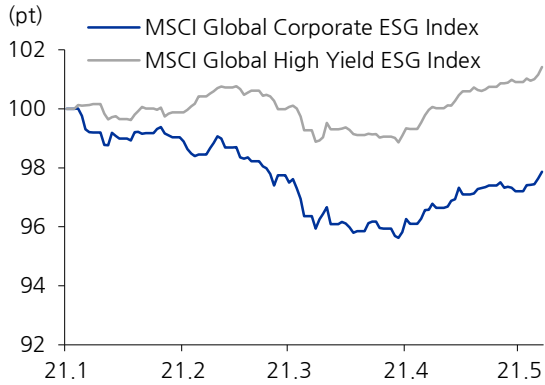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05.03

G

- EU 분류체계(Taxonomy)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EU 공통의 기준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판별하는 과학적·기술적 수단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 유럽의 신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2019년) 이행에 있어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EU 분류체계의 수립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금융 10대 행동계획'(2018년)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됨
- EU 분류체계는 2021년부터 시행중인 금융기관 및 기업의 ESG 의무공시 기준으로 활용되어, 기업과 투자자가 정확한 ESG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금융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은행산업의 경우, EU 분류체계 도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고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고, 환경 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U 분류체계의 은행산업 적용시 기업 앞 지원된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경제활동과 매칭하여 지속가능한 부분을 파악할 것이 요구되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존재함. EU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은행은 UNEP Ff가 제시한 6단계 절차와 원칙, Deutsche Bank, DBS 등의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실무적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과 그 제도적 기반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Taxonomy) 및 녹색금융 모범규준 수립 등 녹색금융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여, 국내 은행 또한 자체 녹색금융체계를 수립하고, 환경, 사회, 사업 및 기술 전문가 육성 등 관련 역량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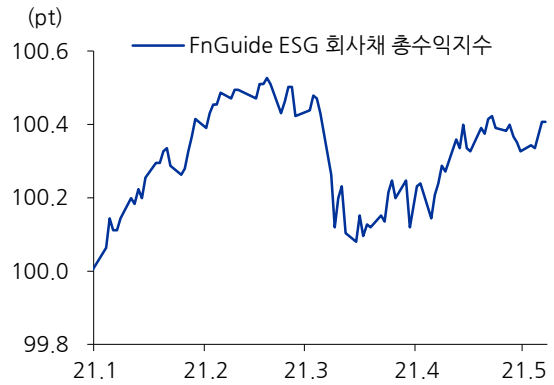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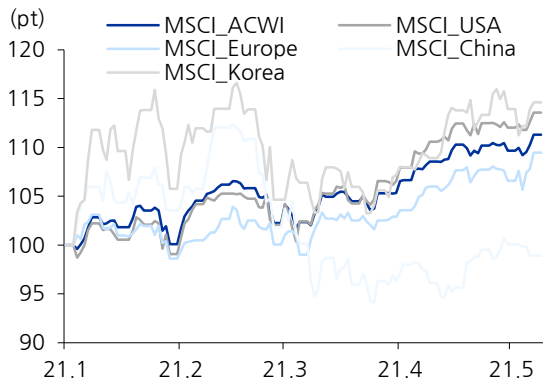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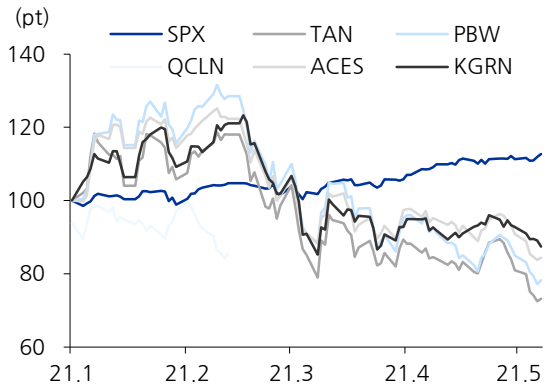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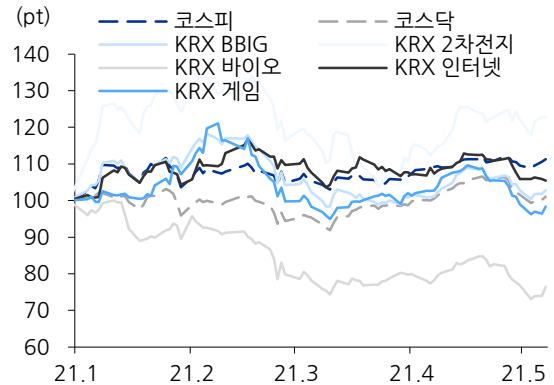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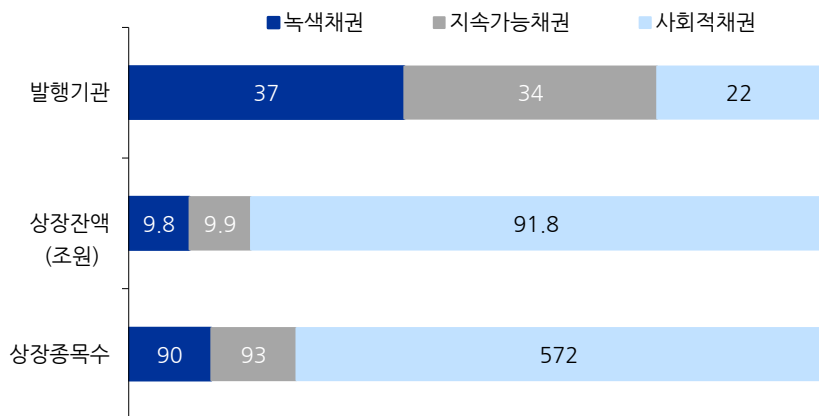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녹색채권	신한은행 25-05-이 10 갑후(녹)	2021/05/07	2.58000	400,000
녹색채권	한화 231-1(녹)	2021/05/07	1.68200	85,000
녹색채권	한화 231-2(녹)	2021/05/07	2.24600	65,000
녹색채권	LG 전자 98-1(녹)	2021/05/04	1.86700	120,000
녹색채권	LG 전자 98-2(녹)	2021/05/04	2.09800	7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 의견 비율

중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 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3.31 기준)